

진도군, 연간 관광객 500만명 시대 '시동'

2018년까지 관광시장 개척·상품 발굴·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 전략 수립...내년 관광산업 활성화 564억 투자

민선 6기 진도군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관광객 500만명 달성 등 '남해안 관광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진도군은 연간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문화·예술 융·복합을 통한 관광상품 발굴 ▲품격있는 관광인프라 확충 ▲법규민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군은 민자 포함 내년에 564억원, 2016년에 1496억원, 2017년에 2825억원, 2018년 이후에 1조원 이상을 관광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은 올해 127만명 수준인 관광객을 2015년 200만명, 2016년 250만명, 2017년 350만명, 2018년에 500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군은 국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급증하는 '오우커'(遊客·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 영화 '명량'과 삼별초 유적지 등 호국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역사탐방객 등을 유치하게 된다.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와 설명회 개최 ▲숙박업소 시설 개선 ▲중국 현지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누리꾼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제품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 ▲중국인 전문 통역 안내원 채용 등을 실시한다.

또한 '문화·예술 융·복합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은 진도 토요 민속공연과 국제 무형문화유산 페스티벌, 진도문화 예술제 등 고유의 문화예술자원을 테마형 관광상품(Only One)으로 개발하고, 남도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창조지역으로 육성하게 된다.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와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진도개(천연기념물 제53호)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군은 '품격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양 최대 규모로 조성중인 대명 진도해안리조트(950실)를 시작으로 관광호텔 2개소, 전통한옥 콘도를 비롯해 급증하고 있는 캠핑 인구를 위한 캠핑장, 난대림 자원을 활용한 휴양 힐링숲과 국립 진도자연휴양림, 국립 난대산림 치유단지를 조성한다.



진도군이 고유의 문화·예술자원과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승전광장과 진도타워를 오가는 모노레일(50인승) 조감도.

연휴양림, 국립 난대산림 치유단지를 조성한다.

진도타워 모노레일과 짙 와이어 설치(고군면 회동리~의신면 무도리), 복합 휴양시설·펜션단지 개발 등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민자 유치를 통해 확충,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 밖에도 '법규민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으로 '관광객 500만명 달성 법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후 ▲관광업계

중사원 친절 교육 ▲한·중·영·일 4개국어 홍보 책자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육성 ▲관광객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한다.

이동진 군수는 "진도를 '남해안 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관광지 주변에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마케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자생지 50ha 40억 들여 전국 첫 '동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한다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동백나무 자생지 50ha에 아토피와 피부질환 등 효능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동백나무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동백나무 숲 조성은 전국 최초로, 오는 2017년까지 국비 20억원 등 모두 4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완도의 동백나무 자생지에 동백을 주제로 한 치유센터, 치유전망대, 숲속쉼터 및 탐방로, 치유숲길 등을 연차별로 특색 있게 조성할 방침이다"고 15일 밝혔다.

완도 동백숲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대규모로 생육하는 집단 자생지로 바다와 연접해 있어 음이온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효능성분인 '알파 피넨'(α-pinene)과 '베타 피넨'(β-pinene)이 다른 수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테라피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백은 잎과 꽃잎, 열매 모두 식약처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어 식용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잎은 예로부터 고급차로 활용돼왔을 뿐만 아니라 두피질환 원인균과 여드름 유발균, 식중독 원인균에도 높은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

오일은 고급 식용유로서 모발 보호는 물론 보습기능, 혈관 이완효과 등의 효능이 밝혀져 산업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산림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완도수목원 측은 지난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함께 '치유의 숲' 조성계획 등 각종 인·허가 및 사업 승인을 마치고 이달부터 동백숲길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독일, 일본 등 산림 치유 선진국의 사례들을 모범으로 삼아 완도수목원의 동백숲을 건강 증진, 은 물론 자연치유 요법을 체험하는 치유 공간으로 차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d@

진도읍 도시계획도로 3개 구간 개설

진도읍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가 지난 11일 개통됐다.

이번에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는 총 37억원을 들여 ▲남동~사정 ▲성내~성동 ▲서외~복상간 총길이 802



향교-북상간 도시계획도로 개통식. 군은 남동리 인근 교동체중 해소를 위해 보은장 모뎀과 천주교 입구까지 총 길이 204m의 도로를 개설했다. 또한 구 군민회관에서 동외회관까지 총 275m를 비롯해 서외 주차장에서 진도향교 입구까지 323m의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개통됐다.

m에 2차로로 개설됐다. 군은 남동리 인근 교동체중 해소를 위해 보은장 모뎀과 천주교 입구까지 총 길이 204m의 도로를 개설했다. 또한 구 군민회관에서 동외회관까지 총 275m를 비롯해 서외 주차장에서 진도향교 입구까지 323m의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개통됐다.

군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쾌적

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된 도시계획도로가 교통불편 해소와 진도읍 외곽회관까지 총 275m를 비롯해 서외 주차장에서 진도향교 입구까지 323m의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개통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공연·전시...해남군 문화강좌 수강생 5팀 작품 발표회

해남군은 17일 해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동안 해남 군립도서관과 문화의 집 문화강좌를 통해 갈고 닦은 수강생들의 실력을 창작작품 발표회와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번 발표회에는 한국무용, 통기타, 하모니카, 난타, 어린이 한국무용 등을

비롯한 총 5개 팀이 참여한다. 또 문화의 집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인 '강강술래 놀이탐험대'팀 16명이 잔조출연해 발표회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준다.

이와 함께 수강생들의 서양화와 수채화, 캘리그래피, 생활도예, 미술 세밀화 작품은 19일까지 해남 문화예술회관 로비에 전시된다.문의(061-530-5896)

/해남=박희석기자 dia@

맛도 소득도 일등 채소...해남 들녘 콜라비 수확 한창

소득작목 육성...올 500t 생산

해남 들녘에서 '콜라비'(Kohlrabi) 수확이 한창이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지역 콜라비 재배농가는 29 농가로 10ha에서 연간 500t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7농가(2.5ha)에서 생산한 콜라비 100t을 생산농협과 협조해 공동 선별·공동 출하·공동 정산 체제구축을 하면서 최고의 품질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직거래를 통한 소득창출에 첫발을 댔다.

지난 2010년 0.2ha에서 첫 시범재배한 데 이어 2011년부터 가을배추 대체작목으로 보급됐다. 콜라비는 9월 정식 후 12월 수확해 2월까지 저장출하가 가능하며, 15kg 1박스에 3만원에 직거래되고 있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콜라비는 수확기 조절 등을 통해 당도가 12브릭스(brix) 내외로 높으며, 달고 아삭한 식감이 좋아 소비처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득도 가을배추 평년소득보다 3배 이상 높은 10a당 280

콜라비 순무와 양배추를 교배해 만든 건강기능성 채소. 아삭한 식감과 달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콜라비는 비타민A와 C,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의 성장에 좋고 피로회복과 숙취해소, 혈압유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겨울철 인기 채소로 각광받고 있다. 각종 샐러드와 생즙, 생과, 김치, 각종 무침용으로 먹는다.

만원이다.

군은 가을배추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내년에는 12ha까지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직거래 추진이 가능한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급이 불안정한 가을배추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단지화 등을 통한 공동출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지역 주민들이 최근 '콜라비'를 수확하고 있다. '콜라비'는 순무와 양배추를 교배해 만든 건강기능성 채소로 가을배추 대체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들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형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정가, 0적장 주기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형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

